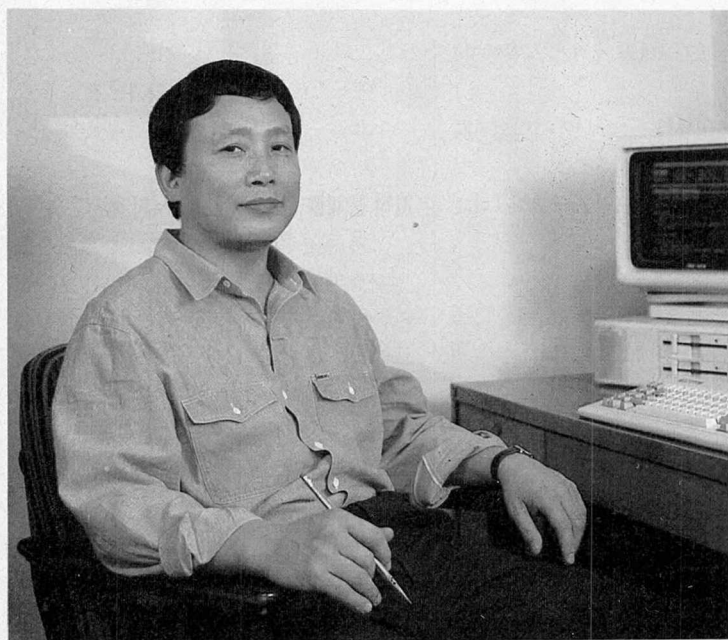


# '일방'에서 '공부방'으로

## 편집자 김형운씨의 책架



1946년 부산 태생. 부산대 철학과 및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졸업. 「문학사상」,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물」 편집장 및 대원사 대표 역임. 현재 김형운편집회사 대표.

며칠 전에 책장을 정리했다.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널려 있던 책들을 제자리를 찾아 주고, 또 오래 간수 못할 것들을 속아내는 일을 했다. 대체로 속아내는 책들은 잡지류들이다. 정기구독을 하는 것, 그때그때 사보는 것 해서 한달에 주간지, 월간지를 합쳐 20권은 넘는다. 그런데 공짜로 보내 주는 잡지들이 또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두어 달만 그냥 내버려 두면, 갖가지 브로슈어나 팜플렛까지 보태져서 방안이 몹시 '시끄러워진다'.

여기서 방안이라고 했지만 잠자는 집의 방이 아니고, 회사의 내 방을 가리킨다. 5년 전에 편집회사를 시작하면서 집에 있던 책들을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 하는 일이 책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므로 묵힐 것들만 빼놓고 싸들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내 많지 않은 책들은 내 사무실에 있었다.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나 올해 들어서는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변화가 생겼다. 올 연초부터 회사 안의 내 방을 사무실로 부르지 않고 공부방이라고 부르기로 내심 작정한 것이다. 따라서 내 책들은 사무실에서 서재로 옮겨진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편집회사 일에 더해 남의 출판사 경영까지 겸해 있었던 지난해 어느날 문득 마음에 반성이 생겼다. 머릿속이 이제 바닥이 났는데 무얼 더 빼먹을 게 있는 듯이 설치는가, 하는 반성이 그것이었다. 동시에 머릿속에 든 것이 없으면 가슴도 용암처럼 차게 식는구나, 하는 자각도 생겼다. 스무 해 가까이 일해 오면서 한번도 내 자신을 재충전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진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올해만큼은 사무실을 일방이 아닌 공부방으로 삼고 여기서 침적하는 것이 옳은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그래서 올해는 출판사 일에서 손을 떼고, 일주일에 하루씩 나가던 학교 강의도 그만두었다. 그리고 되도록 일방이 아닌 공부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쓰기로 했다. 이런 작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마 책장의 책들이 누구보다도 더 미심쩍어하며 나를 지켜볼 것이다. <김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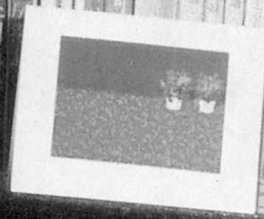
사진 · 임영균



63 政治思想史1  
64 政治思想史2

民族經濟論  
경제기사읽는법  
韓國經濟

교양도서목록  
교양도서목록



現代社會와 哲學

한글서체  
한글서체



漢江史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OLYMPIADE DES ARTS  
OLYMPIAD OF ART

쌍용·투자금융